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지난 16일 개막한 2025 바이오인태셔널컨벤션에 설치된 한국관, 70여개 참가국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은 독립된 전시관을 설치했다

보스톤서 열린 2025 바이오 USA, 뜨거운 한국 바이오의 열기 확인

지난해 가장 많은 참가 기록했던 한국, 올해도 1위 가능성
“한국 바이오 세계의 선두권 유지 기회 앞으로 3-5년”
한국바이오협회와 코트라 기획한 한국관 돋보여

(뉴튼=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시포트에 위치한 보스톤컨벤션센터(BECC)에서 열린 2025 바이오인태셔널컨벤션(이하 바이오 USA)에는 약 70여개의 한국 전시기업과 1

천여명이 넘는 참관객이 방문해 한국 바이오의 열기를 과시했다.

전 세계의 바이오테크 및 생명과학업계 주요 관계자 2만명이 참가한 이번 보스톤 2025바이오

USA는 72개국의 연구자, 기업인, 투자자들 등이 16일부터 19일까지 180여개의 세션을 통해 바이오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AI·디지털 헬스, 차세대 세포·유전자 치료제, 공공 정책, 투자 동향, 환자 중심 혁신 등 20개 주제별 포럼으로 나누어 운영됐다. 올해에는 화려한 연사진들이 참여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FDA 커미셔너 마틴 A. 마커리 박사,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

〈전체 기사 읽기〉

사, 조시 사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전달했다.

주최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1,600개 기업 및 기관이 전시 부스를 꾸렸으며, 참가 등록 인원의 46%가 해외 대표단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국 전시관은 단연 돋보였다.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와 KOTRA가 공동 기획한 ‘한국관(Korea Pavillion)’ ▶5면으로 계속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내 집 마련·투자·재용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용자·재용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크!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매사추세츠 주민 3명 중 1명 식량 불안 겪어

하루 한끼 해결 못하는 극심 식량 불안도 전체 24%
흑인, 히스패닉, LGBTQ의 식량 불안 2명 중 1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성인 약 200만 명, 약 주민 3명 중 1명이 지난해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

〈전체 기사 읽기〉
지 못하는 ‘극심한 식량 불안’ 상태를 경험한 비율도 무려 24%에 달했다. 그레이터 보스톤 푸드뱅크(The Greater Boston) ▶7면으로 계속

정기 휴간 안내 7월 4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방문한 육동한 춘천 시장 "춘천이 한국 미래 모델 될터"

춘천을 최고 교육도시, 전국적인 초일류 도시로 성장시킬 것 세인트존스와 협력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 실제 적용 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을 방문한 육동한 춘천 시장(민주당)은 춘천시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교육을 꼽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6일 오후 보스톤 다운타운에 위치한 서울 레스토랑에서 강원도민회와 간담회를 갖기 전 기자와 만나 “전국적인 그 초일류 도시를 만들면 그 선도 모델로 강원도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며 교육과 바이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최고의 교육도시인 보스톤에서 이 같은 발언은 자연스런 맥락이다. 그러나 춘천시가 지난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수업방식은 세인트존스대의 유명한 고전 100권 공부법 그레이트북스(Great Books)란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다.

육동한 시장은 미국방문의 첫번째 기착지인 보스톤의 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세인트존스대학이 위치한 메릴랜드 애나폴리스를 찾는다. 그는 “고전을 읽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을 하며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

는 교육 방식으로 춘천에서 적용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4년동안 전공에 상관없이 100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레이트 북스 학습법은 처음 하버드에서 유래됐다. 콜롬비아, 보스톤대, 시카고대를 거쳐 세인트 존스에서 최종적으로 안착해 현재에도 교육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보스톤을 첫 출장지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바이오와 교육이 모두 만나는 도시였기 때문일까. 2025년 세계바이오컨벤션이 개최되고 있는 보스톤에서 육동한 시장과 춘천시 관계자들은 15일 미국내 한인 생명과학 연구자 네트워크인 K-BioX등과 심포지움을 갖고 MOU를 체결했다.

육동한 시장은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앞으로 더 심화하는 전략의 일환” 으로 “국제화된 역량의 연구그룹과의 교류 협력은 물론 춘천의 바이오 성과들을 해외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고 평가했다.

〈전체 기사 읽기〉

육 시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거친 경제통이다. 여러 곳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강원도연구위원장으로 고향 발전을 선택한 그는, 연구원장으로서 “국가의 미래 비전 있어 지역의 역할 및 발전 전략을 고민했다” 고 말했다. 춘천 시장으로서 “이런 고민들과 축적된 사고를 춘천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중” 이다. 그는 “춘천에서 이뤄진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과거 대학시절 행사 합격한 뒤, 대학 4학년 때 도봉구 쌍문동에서 야학 교사로 활동했던 육 시장은 “사회를 더 알고, 공직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할까에 대한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유용한 시간” 이었다며 “지금도 그 시절을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육 시장은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하다” 며 춘천 시장을 전문관료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념과 정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측면에 있어 “정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고 말해 그의



보스톤을 방문한 육동한 춘천 시장이 보스톤 다운타운 서울 레스토랑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 시장이 박형태 보스톤 강원도민회장으로부터 레드삭스 저지를 선물받고 활짝 웃고 있다

중도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경제정책 중심으로 하고 국가장단기 비전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 는 육 시장은 자신의 비전에 대해 “과거의 축적이 쌓이 나는 단계” 라며 “꽃을 피울 때까지 춘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도의 역할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고민을 갖고 있다” 고 말해 꽃이 핀 이후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서울설령탕
SILUO SEOLSE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e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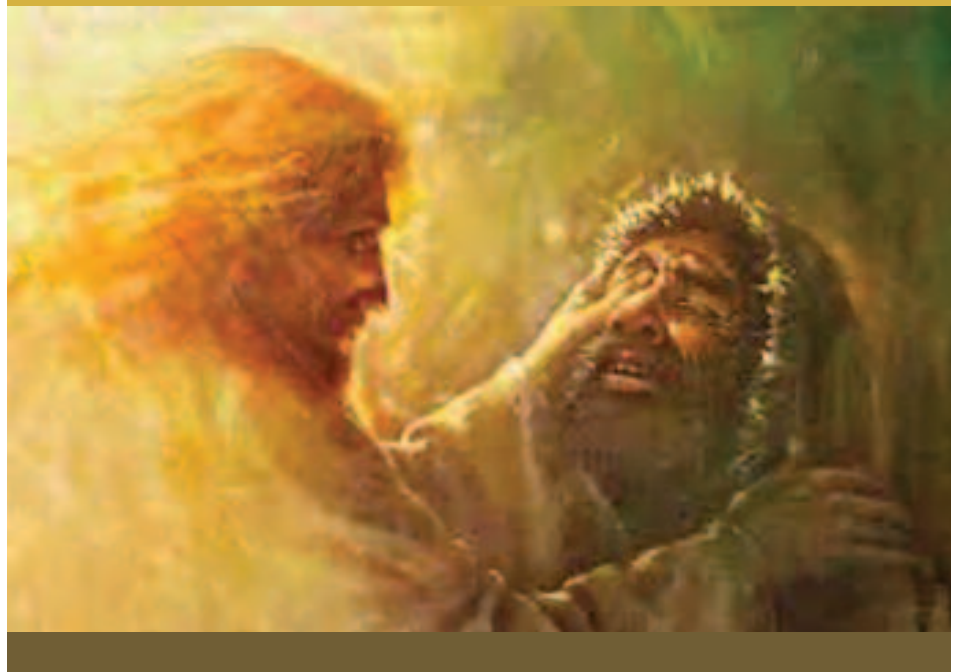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oeg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뉴잉글랜드 차세대 원자력 모임 후,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성중 교수(오른쪽에서 5번째)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뉴잉글랜드 차세대 원자력 모임, SMR 기술과 미래 조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중심이 된 뉴잉글랜드 차세대 원자력 모임(회장 백승규, 부회장 박동근)이 주최한 네트워킹 행사가 지난 6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MIT 케임브리지 캠퍼스 내 NW17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원자력 분야에 관심 있는 차세대 한인 전문가들의 교류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행사에는 김재휘 보스턴 총영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중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현 MIT 원자력공학 방문교수)가 초청연사로 나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SMR 기술의 발전 현황과 함께 미국, 한국 등 국내외 개발 동향

〈전체 기사 읽기〉

을 소개하며, SMR이 탈탄소화 시대의 대안 에너지원이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SMR이 지속 가능한 독립형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 이후에는 참가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및 저녁 식사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지원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 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모임측은 “실질적인 원자력 과학기술과 정책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bostonkoran@hotmail.com

시와 테크 미래... 보스톤서 〈Korean AI & Tech Night〉 개최

대학생, 개발자, 연구자, 창업자, 투자자 등 테크분야 관심있는 한인 참여 모두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 대학생, 연구자, 스타트업 창업자 및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Korean AI & Tech Night’ 행사가 오는 6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보스톤 더블트리 스위트 힐튼 호텔에서 열린다.

비즈크러시(BizCrush)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25 Dream AI 해커톤의 전야제로 마련되며, 인공지능이 우리의 커리어와 미래, 그리고 테크 업계 내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 개발자, 연구자, 창업자, 투자자 등 테크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날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주요일정은 이든 리(Ethan Lee) GB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대표가 AI 투자 트렌드 전망에 대해 강연하며, 이어 자율형 온실 로보틱스 스타트업 조르디(Zordi)의 이길우(Gilwoo Lee) 창업자 겸 CEO가 “AI 시대, 개발자와 연구자의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이후 질의 응답시간과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진다.



〈전체 기사 읽기〉

이날 토론 주제는 AI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개발자 및 연구자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뤄진다.

이번 행사는 자동화 기반 네트워킹 서비스 비즈크러시(BizCrush)가 주관하고, SV 인베스트먼트, 조르디, GB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가 후원한다.

행사 장소는 더블트리 스위트 바이 힐튼 호텔 보스톤(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Boston - Cambridge, 400 Soldiers Field Road, Boston)이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https://lu.ma/k7lu7dsz>
 행사 문의 및 협업 관련 사항은 이메일 taemin@adelab.dev 또는 LinkedIn을 통해 가능하다.
 bostonkoran@hotmail.com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매사추세츠 주택시장, 중산층마저 내집마련 불가

이유 살펴보니 소득 대비 집값 턱없이 높아, 건강한 기준의 3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5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중산층 가정마저 내집마련을 불가능한 꿈으로만 간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연합센터(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그레이터보스톤의 주택가격대소득비율(price-to-income ratio)은 6.3으로, '건강한'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3배일 때를 '건강한 시장'으로 간주한다. 이 주택시장에서는 10만 달러의 중위소득이면 30만 달러짜리 집을 살 수 있다. 과거에는 주택가격대소득비율이 이처럼 3배였지만 현재 매사추세츠의 평균 주택가격은 연간 가구소득의 6배에 달하며, 그레이터보스톤 지역은 6배에 근접하고 있다. 즉 내집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MIT 도시경제 및 부동산학과 알버트 사이즈(Albert Saiz) 교수는 “소득과 주택가격 간의 격차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이 수치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층의 현실을 아예 반영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의 상당수 주민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택가격소득비율은 3배 수준에 머물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금융위기 직전 이었던 2005~2006년대 수준까지 다시 도달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수요 폭증이나 공급 부족만이 아니다. 유매스(UMass) 보스톤의 경제학과 커렌 홈(Keren Hom) 교수는 “주택 공급의

〈전체 기사 읽기〉

양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주택이 공급되었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보스톤 외곽 교외 지역에서는 중 소형 ‘스타터 홈(starter homes)’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구형 주택을 허물고 대형 단독주택, 이른바 ‘맥맨션(McMansions)’을 신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토지 비용 상승과 고급화 수요에 의한 것이지만, 그만큼 시장에서의 평균 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소득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1987년부터 2022년 사이, 매사추세츠의 중위소득은 약 100% 상승한 반면,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약 300%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1만7천 달러의 소득이 필요하다.

사이즈 교수는 “이제 누구나 집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며 “젊은 세대는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임대주택에 평생 살거나, 주택이 더 저렴한 주로 탈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매사추세츠는 세대 간 자산 형성 기회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주택시장 봄철 거래 급증 집값 여전히 사상 최고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봄 성수기를 맞아 그레이터보스톤(Greater Boston)의 주택 매매 건수와 매물 수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중간 주택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협회(GBAR)가 6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그레이터보스톤 주택시장은 활발한 매매에도 높은 주택 가격대를 유지하며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GBAR 마크 트리글리오니 회장(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대표)은 “매물 증가와 호가 대비 판매가 비율의 유지는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시에 중간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그레이터보스톤에서는 총 1,075건의 단독주택이 거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증가했다. 콘도미니엄은 948건이 거래돼 1% 미만의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신규매물도 증가했다. 단독주택의 신규매물 수는 1,766건으로 지난해 5월과 거의 비슷했지만, 콘도 시장은 8.5% 증가한 1,563건이 새로 등록됐다.

특히 재고 물량이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단독주택 재고는 전월 대비 11.3% 증가했고, 콘도는 7.4% 늘어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27.2%, 36.7% 급증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98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2% 상승했고, 콘도 중간 가격은 4.8% 상승한 74만 9,500달러를 기록했다.

트리글리오니 회장은 “보스톤은 의료, 교육, 과학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유지된다”며 “토박이들이 쉽게 이주하지 않는 특성상 공급은 제한적이며, 현재의 수요-공급 균형만으로는 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JUNG KWAN JANG

세계 No.1 정관장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6년 숙성 KOREAN RED GINSENG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억회복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매사추세츠,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시스템 보유...의료 접근성과 비용 모두 1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 주로 다시 한번 선정됐다. 비영리 연구기관 커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는 17일 발표한 2025년 주별 건강 시스템 성과 점수표(State Health System Performance Scorecard)에서 매사추세츠를 종합 1위로 평가했으며, 특히 의료비 부담과 접근성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어린이 예방접종률, 건강보험 보장률, 영아 사망률, 예방 가능 조기 사망률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우리 주는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주임을 입증했다”며, “합리적인 비용의 의료 접근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아동 및 영유아 건강 증진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수십만 명의 매사추세츠 주민에게서 건강보험을 빼앗으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는 누구나 고품질의 의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

〈전체 기사 읽기〉
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트 월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매사추세츠의 의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매스헬스(MassHealth)를 통한 메디케이드 자금 활용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요양시설 노인 환자 지원과 병원 재입원 예방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순위는 커먼웰스 펀드가 지난해 발표한 여성 건강 및 재생산의료 점수표에서 매사추세츠가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은 성과다. 앞서 2023년 점수표에서도 종합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힐리 주지사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보건의료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주 바이오테크놀로지 혁신기구(BIO)로부터 ‘2025년 올해의 주지사’로 선정되었다.

매사추세츠는 최근 미국 내 최고의 경제를 가진 주로 평가되었으며, 교육, 혁신, 여성과 가정 친화성, 노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국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서 열린 2025 바이오 USA 합스 한국 바이오 열기

▶▶1면에 이어서

에는 51개 회사 및 기관이 참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15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단독 부스를 따로 꾸몄다. 전시부스 없이 파트너링 및 발표세션에만 등록된 스타트업 등을 더하면 80여개가 넘는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한국 참가자 수가 전체 7개 국제 참가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참가자(delegates)는 1,230명으로 1위를 기록했었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에 따르면 18일 열린 ‘Korea Night’ 네트워킹 리셉션에는 사전 등록만 700여 명이 넘었으며 현장등록까지 합하면 1천여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5 바이오 USA 측은 19일 현재 아직 공식 집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문의 이메일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개막 첫날인 16일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한국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



16일 한국전시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국 바이오에게 주어진 시간은 3에서 5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규 부회장은 “한국은 자체 파이프라인(자국 기업·연구소가 원천 기술로 발굴·개발 중인 신약 후보군)을 가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라며 한국 바이오의 위상이 세계 선두권에 속해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선진국의 기술 이전, 복제약(CMO) 제조 등의 “팔로잉 전략에서 벗어나 퍼스트무버로 점프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플랫폼을 깔아주고 기업들이 매진해

발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신약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스톤에 위치한 제노스코의 고종성박사와 SK바이오팜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전시부스에서 CMO, CBMO, 완성되지 않은 벤처형 기술, 라이선스아웃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전시했던 반면 “SK바이오팜은 FDA를 통과해 시장에 런칭한 단독제품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이 같은 제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가슴이 찡했다고 밝혔다.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경찰 남친 살해 혐의 캐런 리드, 주요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무죄 판결에 지지자들은 환호, 일부는 극심한 불신 드러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2년 겨울, 보스톤경찰 존 오키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캐런 리드가 11주간의 재판과 4월 간의 배심원 평의 끝에 주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사추세츠 데드햄 고등법원(Dedham Superior Court) 앞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결과를 지켜봤고, 배심원단의 판결이 내려 지지 현장은 환호했다.

배심원단은 리드에게 제기된 가장 중대한 세 가지 혐의인 2급 살인, 음주운전 중 과실치사, 사망 사고 후 도주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초범인 리드는 1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리드는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 앞에서 “지난 4년 동안 지지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존 오키프를 위해, 정의를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은 나와 내 변호팀이었다” 고 덧붙였다.

리드는 2022년 1월 29일 새벽, 오키프를 동료 경찰관 브라이언 앨버트의 집 앞에 내려주고 떠난 후 그를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떠났다는

〈전체 기사 읽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고인측은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피고인 측은 오키프가 앨버트의 집 안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집에 있던 독일 셰퍼드견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이후 집 앞 눈 덮인 잔디밭에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리드의 변호인 앨런 잭슨은 판결 직후 “전문가로서 가장 위대한 순간” 이라고 밝혔으며, “결백한 여성이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다” 고 말했다.

리드의 오빠 네이션 리드는 “오키프 가족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존은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은 그를 매우 아꼈다” 고 전했다.

한편, 오키프 가족은 리드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방문한 바(Bar)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리드와 오키프,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사건 당일 밤 방문했던 바와 애프터파티 장소였던 앨버트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둘러싼 방어 측의 주장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ATF(알코올·담배·화기 단속국) 요원 이자 파티 참석자였던 브라이언 힌스가 리드에게 감정이 있었고, 오키프에게 해를 입힐 동기가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리드와 함께 오키프를 찾았던 제니퍼 맥케이브의 핸드폰에서 “추운 날씨에 죽는 방법” 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돼 의혹을 더했다. 해당 검색은 오키프의 시신이 발견되기 몇 시간 전인 새벽 2시 27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케이브는 이후 법정에서 “오전 6시 20분경 리드의 요청으로 검색한 것” 이라고 진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맥케이브를 포함한 주요 증인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심각한 왜곡” 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는 “존과 오키프 가족은 많은 고통을 겪었고, 정의로부터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고 적시돼 있다.

한편, 초기에 수사를 지휘했던

주경찰 수사관 마이클 프로터는 1차 재판에서 리드를 비하하는 성적 이고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경찰에서 해임됐다. 그는 이번 2차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리드는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매사추세츠 블로거인 ‘터틀보이(Turtleboy)’ 로 알려진 에이든 커니가 적극적으로 그녀의 무죄를 주장했다. 커니는 이 과정에서 증인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일부 혐의는 기각되고 나머지는 아직 재판 중이다.

캔턴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은 극심한 분열을 야기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앨버트 가족 구성원을 겨냥해 공공장소 비난을 이어가기도 했다. 캔턴 셀렉트 보드 의장 존 맥코트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가 일부에게는 안도감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여전히 의문을 남길 수 있다” 며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 밝혔다.

법원 밖에서는 리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에어혼과 폭죽을 터뜨리며 기쁨을 나눴다. 한 지지자는 “드디어 옳은 판단이 내려졌다” 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날만큼은 너무 행복하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매사추세츠 주민 3명 중 1명 식량 불안 겪어...연간 20억 달러 해결비용 필요

▶▶1면에 이어서

Food Bank, GBFB)와 매스제너럴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5 매사추세츠 식량 접근 보고서: 굶주림의 비용 (Food Access in Massachusetts: The Cost of Hunger)' 을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지원 축소로 식량 위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 불안 5년 새 2배, 극심한 식량 불안은 4배

매사추세츠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사추세츠 내 전체 가구의 37%가 식량 불안을 경험했다. 이는 2019년의 19%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가장 심각한 수준인 '극심한 식량 불안' 비율은 2019년 6%에서 지난해 24%로 4배 가까이 치솟았다.

흑인 (46%), 히스패닉 (62%), LGBTQ+(56%) 가구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랭클린, 햄프셔, 햄든, 브리스틀, 서퍽 카운티에서는 2가구 중 1가구가 식량 불안 상태에 놓여있다.

햄든 카운티에 거주하며 여성·영유아 보조 프로그램(워, WIC)에 참여 중인 히스패닉 어머니이자 대학생인 한 응답자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한 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생계가 바차고, 앞으로 수년간 가족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고 토로했다.



건강, 의료, 지역사회까지 영향을 미쳐

식량 불안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사대상 중 식량 불안을 겪는 가구의 67%는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40%는 필요한 의료, 치과, 또는 처방 약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처방 약 치료 포기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68%가 이를 택했다.

보고서는 식량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시스템의 부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매스헬스(메디케어) 이용자 중 식량 불안으로 인해 유발된 응급실 사용 및 입원비는 성인 기준 연간 8억7,800만 달러, 아동은 3억7,3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전체 의료비 부담은 최대 13억 달러에 이

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식량 불안 가구의 선거 투표율은 58%로 식량이 충분한 가구의 82%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들은 자원봉사, 지역 행사 참여율도 낮고, 지역사회 내 안전과 지지 체감도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굶주림은 개인 문제가 아닌 공공 비상사태

캐서린 다마토 보스턴 푸드뱅크 대표는 "굶주림은 단지 개인의 고통이 아닌 공공 비상사태로, 건강과 재정, 사회적 연대감까지 파괴하고 있다" 며 "매사추세츠는 언제나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복지 해법을 만들어온 만큼,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엘시 타베라스 매스 제너럴 브리검 보건행정성 최고책임자는 "식량 불안은 고립된 문제가 아니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중 하나로 다룬 생계비 위기와 맞물려 있다" 며 "실질적인 지역사회 건강과 의료 시스템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 식량 지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연간 75억 달러 '기본 생활비' 필요

보고서는 식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0억 달러, 즉 식량 불안 가구당 주당 평균 62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한 기본 생활필수 비용까지 해결하려면 연간 75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

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SNAP, WIC 등 영양 보조 프로그램 확대 ▲의료 현장에서의 식량 지원 통합 ▲실태에 기반한 추가 연구 ▲식량 불안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 반영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사추세츠 주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와 보고서는 연방 농무부(USDA)와 매사추세츠 교육부(DESE)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보고서와 조사 방법론은 GBFB 웹사이트(www.gbfb.org/Data)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연방법원,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금지 명령 일주일 연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아온 연방법원의 긴급 명령이 최소 일주일 더 연장됐다.

엘리스 버로우즈 연방판사는 16일 열린 보스톤 연방법원 심리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려는 정부의 조치를 임시로 금지한 자신의 명령을 오는 6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버로우즈 판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판결문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는 지난 5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6월 4일 수정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와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벌이고 있으며 이는 수정헌법 1조와 적법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측 법률대리인 이안 거셴온(Ian Gershengom)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

〈전체 기사 읽기〉

학생들을 도구로 삼아 이민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티베리우스 데이비스(Tiberius Davis) 변호사는 "미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들에 유학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민과 외교 문제를 결정할 폭넓은 권한을 가진다"며 "이것으로 이번 재판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버드 입학생에 대해 6개월간 학생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현재 유학생에 대해서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개별적으로 비자 유효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는 버로우즈 판사가 일주일 전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지 못하도록 내린 명령을 사실상 무시한 형태였다.

하버드는 국제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학교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지원금을 삭감했으며, 대학의 인사 및 운영에 대해 연방 정부의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는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 법률조항이 "하버드를 특정한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정된 소장에는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를 향한 정부의 보복 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하버드는 지난 4월에도 3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 삭감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도 현재 계류 중이다.

hsb@bostonkorea.com

미국 유학·연수 비자 절차 재개... 'SNS 검열'에 불확실성은 여전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전체 기사 읽기〉

특파원 홍정규 기자 =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다만, 비자 발급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비자 신규 신청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지침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적대성'의 구체적 기준과 정의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NYT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외국인들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 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미국 유학·연수·교육·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비자를 고리로 진보적 성향의 자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입국 희망자뿐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심사 중단을 지시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zheng@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HUFAM | 한성외교

한 교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명외과
실용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승인이 커져왔습니다!

휴람 의료관광 2가지 혜택 안내
1. 무료 상담: 휴람 의료관광 상담 센터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료 예약: 휴람 의료관광 예약 센터에서 무료로 예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	수술 전 상담	수술 후 입원	HUFAM 성명외과
154만 원	154만 원	660만 원	대형 의료기관 인증
수술 전 검사	수술 전 상담	수술 후 입원	수술 후 입원
495만 원	254만 원	250만 원	550만 원
수술 후 입원	수술 후 입원	수술 후 입원	수술 후 입원
220만 원	110만 원		

휴람 의료관광 2가지 혜택 안내

1. 무료 상담: 휴람 의료관광 상담 센터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료 예약: 휴람 의료관광 예약 센터에서 무료로 예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람 의료관광 2가지 혜택 안내

1. 무료 상담: 휴람 의료관광 상담 센터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료 예약: 휴람 의료관광 예약 센터에서 무료로 예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수민

430-1111-1111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깊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 구정훈
아동부/youth 전도사 : 최인영
청년부 전도사 :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Letterly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창간 20주년 기념, 온라인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

2차 집중 프로그램 접수중

기간: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 마감: 6월 21일까지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좋은 글쓰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좋은 읽기 및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의 English 읽기, 글쓰기 실력이 걱정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성패는 결국은 글쓰기로 좌우됩니다. 대학들은 커먼 에세이, 주제별 글쓰기, 긴 글쓰기부터 짧은 글쓰기까지 모든 것을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짧은 글쓰기로 주제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11, 12학년 때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커리어에서도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글쓰기를 어떻게 배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3주간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영어 작문 전문 교육기관인 Letterly와 손잡고 온라인 보스톤코리아 서머 저널리즘 부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영어 글쓰기 교육기관인 Letterly는 Robinhood, Epipelagic Ventures 등의 벤처 투자를 받은 전도양양한 영어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글쓰기 교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유펜 등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특징

기간: 3주간 집중 프로그램 (6, 7, 8월 3차례)
6월 9일 - 27일, 7월 7일 - 25일, 8월 4일 - 22일
수업 방식: 온라인 1:1 맞춤형 지도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 내용:
매일 지정된 글 독해
주제별 기사 및 에세이 작성
전문 코치의 이중 피드백
주 1회 라이브 온라인 미팅을 통한 수정 지도

특별 혜택

-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학생 개인별 성장 과정 모니터링
- 전문가의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글쓰기 실력 향상
- 완성된 글은 Letterly 온라인 매거진과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
- 우수작품 선정 보스톤코리아 장학금 및 작품 게재

기대효과

- 논리적 사고력 강화
- 명확한 문장 구사력 향상
- 전문적인 글쓰기 편집 기술 습득
-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연방 상원, 스테이블 코인 허용 담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68대 30초당적 합의로 통과, 근소한 다수 하원에서 통과해야 하원이 암호화폐 개혁안까지 첨부시 상원통과에 진통 겪을 수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상원이 17일 화요일, 미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태이블코인(stablecoin)'을 규제하는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시켰다.

AP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니어스(GENIUS)법안은 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첫 연방 차원의 규제 조치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해당 산업의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어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검토 및 수정 절차를 밟게 되는 이 법안은 올 들어 상원에서 통과된 두 번째 주요 초당적 법안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53대 47)에서 무려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조시 하울리(미조리)와 랜드 폴(켄터키) 두 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을 허용한 것과 관련 개인 이해관계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안젤라 알소브룩스(메릴랜드) 상원 의원은 "우리가 원했던 모든 조항을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초당적인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았던 영역이 이제는 규제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빌 헤거티(테네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며,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GENIUS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라 명명된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규제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연방의회 의원과 그가

〈전체 기사 읽기〉

족의 스테이블코인 투자 수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통령과 그 가족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버지니아 골프장에서 트럼프 이름을 딴 암호화폐 투자자와 비공개 만찬을 주최한 바 있으며, 가족은 독자적인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프로젝트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개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4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5,735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관련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수익은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이날 투표 전 상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0년 이내에 3조 7천억 달러(3.7 trillion) 규모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럼프와 직접 면담하며 지지를 표명했으며, 최근 열린 육군 창립 250주년 퍼레이드에서도 코인베이스는 주요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 행사는 트럼프의 79세 생일과 겹쳐 정치적 의미를 더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이익 충돌 문제를 남긴 채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반부패 조치를 포함하지 않은 GENIUS 법안 통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의 추구에 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의 부패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갈아주는 격"이라며, 아마존이나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초선의원 엘리사 슬롯킨(미시간)은 지난해 선거에서 암호화폐 관련 슈퍼PAC의 1천만 달러 지원을 받았다. 그녀는 "완벽한 법안은 아니지만, 건설적인 초당적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도 몇 가지 고비를 넘어야 한다. 향후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인 하원을 통과해야 하며, 일부 하원 의원들은 보다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편안 첨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같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이 상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해당 법안이 책상에 올라오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약 50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

hsb@bostonkore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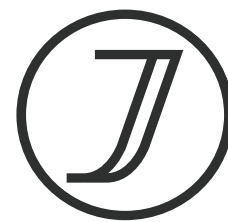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련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연준, 신중한 금리정책 지속...트럼프 압박에도 독립성 견지

연내 2회 인하 유지하며 관망 기조...관세 인플레이션 우려 노동시장 악화 땀 정책변화 가능성...중동 정세의 악화도 변수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하고, 경제전망에서 연내 2차례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한 것은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wait and see)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물가지표가 추가 금리인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이 아직 견조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월가 전문가들도 관세정책의 영향이 아직 미국의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인플레이션을 크게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된 것도 연준이 고려해야 할 변수를 추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조기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관측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 인플레이션 우려에 '관망' 기조 재확인

이번 연준의 4번째 금리 동결 결정의 핵심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반등

에 대한 우려다. 최근 발표된 물가지표만 보면 관세발 인플레이션 조짐은 아직은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에 머물렀고, 뒤이어 발표된 5월 도매물가도 전월 대비 0.1% 오르는데 그치며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었

다. 반면 5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하락하는 등 실물지표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점차 감지되는 분위기다.

최근 경제지표만 떼어놓고 보면 연준이 즉각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우호적인 경제 여건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지속 시 미국 내 물가 영향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 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관세 영향이 반등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지난 5일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계속 지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 연준 내에서도 고용악화 위험보다는 물가상승률 위험을 좀 더 무게를 보는 시각이 있음을 드러냈다.



증권시장

나아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격화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연준의 통화정책 고민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견조한 노동시장 덕에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 유지

관세 정책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연준이 '관망 모드'를 지속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3만9천명 증가해 시장 예상을 넘었고, 실업률은 4.2%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와 달리 노동시장은 견조한 모

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노동시장 악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로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무릅쓰고 금리 인하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관세 및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지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정책 금리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파월 의장은 당시 회견에서 '좋은 위치'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사용했다.

이를 감안해 연준 위원들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 반영한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2회로 3월 전망 때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연준 위원들

은 이 같은 인하 횟수 전망을 작년 12월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유니크레디트의 토비아스 켈러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최근 미국 노동시장의 회복력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인하)하기 전 정부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 경제 영향이 더 뚜렷해질 때까지 상황을 기다릴 여유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 "멍청한 사람"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 지속...조기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정치적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 탓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관측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연준에는 솔직히 멍청한(stupid) 사람이 있다. 그는 아마도 오늘(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10차례나 내렸는데 우리는 한번도 안 했다"고 파월 의장을 직격했다.

그는 파월 의장에 대해 "똑똑하지 않은 사람", "정치적인 사람", "창피하다" 등으로 비난한 뒤 "아마도 내가 연준으로 가야겠다. 내가 연준 의장으로 나 자신을 지명할 수 있나"라며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지만, 월가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그림자 의장'을 임명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유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유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유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이란 결정 보려 최종명령은 보류"

WSJ 보도...트럼프 "공격 여부 최종결정 안해...이란 정권 무너질수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동참에 '모호성' 유지...백악관 '워룸'서 이틀째 회의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숙고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시한 도래 1초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호성을 견지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나 (이란의) 핵무

기 보유나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신정 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기간 말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란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서 명해야 했다"며 "나는 지금 그들이 '(문서에) 서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측이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을 방문하길 원하고, 미측도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

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를 바란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동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전함,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국힘 "김민석 반성 · 소명 없어"…'총리후보 사퇴 · 지명철회'

금전거래, 아들 대입 특혜 의혹 등 전방위 난타... "남은 건 대통령 결단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공방에 "與, 尹 등 물타기용 증인 요구... 청문회 깨자는 것"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전과 및 금전거래 의혹 등을 연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대해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라며 "이른바 기타 소득이 있었다는데, 의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치자금 수수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검찰 조작'이라느니, '표적 사정'이라느니 주장하면서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 후로도 '스폰서 정치'를 계속해온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문제는 3무(無)다. 전과에 대한 반성이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며 "정치검찰 탓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도움만 바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숨는 자,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쏘아붙였다.

곽규택 의원은 "전과 4범 대통령이 전과 4범 국무총리를 지명·두둔하는 '전과자 주권 정부'의 추태"라고 고도비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수입·지출 내역을 '월별 가계부' 형태로 분석한 후 "일반 가정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 910만 원 정도 버는 가정이 2천150만 원 정도를 쓴 것"이라며 "이런 가계부가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매달 드러나지 않은 수입이 1천200만 원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 부의금과 강연료라는 것"이라며 "왜 세무 신고, 재산 등록은 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화대 석사 학위 논란과 아들 입시 특혜 논란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월·수·금 아침 7시에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다녀왔다는 등, 일주일 한두 번씩 갔다 왔다는 등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면서도 충분히 청화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국민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초 민주당 최고위원회 기록이 있다. 당시 회의 개최 일시가 오전 9시 또는 9시 30분으로 나와



국민의 힘 김용태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의 재산 증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있다. 아침 7시에 회의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당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 출처 논란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눈에 실 핏줄이 터졌다'는 등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감성팔이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토록 기괴하고 혼탁한 청문회를 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망라한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제출한 것을 두고는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을 안 부르

려는 의도에서, 협상용으로 가지고 온 물타기용 증인 신청 명단"이라며 "민주당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하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오전 당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협상상

황에 대해 "상대 당 간사는 '민주당 건 다 받아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것은 못 받겠다'고 하는 지경"이라며 "이건 청문회를 하자는 게 아니라 깨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minaryo@yna.co.kr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NE 20th - JUNE 26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GOCHUJANG CREAM RISOTTO

It's comforting, craveable, and made to be cooked with love. Find all your ingredients at H Mart and bring the flavour home!
 진한 크림과 매콤한 고추장의 조화~ H 마트와 함께 고추장 크림 리조토를 만들어보세요!



Rambutan 람부탄 LB \$2.79	Chinese Chive 중국 부추 LB \$1.99	White Donut Peach 도넛 복숭아 LB \$2.99	Shanghai Choy 청경채 LB \$0.99	White Peach/Nectarine 백도/백천도 LB \$2.99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JUMBO EA \$5.99	Mangosteen 망고스틴 LB \$7.99
Persian Cucumber 페르시아인 오이 16 OZ/PKG \$0.99	Mini Sweet Pepper 미니 스위트 페퍼 1 LB/PKG \$1.49	Kent Mango 켄트 망고 BOX \$8.99	Dragon Fruit White Flesh 용과 LB \$2.49	Blueberry 블루베리 1 PINT/PKG 18 OZ/PKG \$2.49 \$3.99	Washington Red Cherry 체리 LB \$4.99	Green Onion 파 BUN FOR \$1.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Ox Tail 생 소꼬리 LB \$14.99
Fresh Pork Single Belly for BBQ 생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SLICED/LB \$6.99	Pork Jowl Meat 돼지 항정살 LB \$7.9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1.99	Marinated Pork Spare Ribs 양념 돼지 갈비 LB \$3.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Fresh Porgy 흑도미 LB \$2.99
Headless White Shrimp 흰새우 16-20'S/LB \$6.99	Frozen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LB \$2.99
Frozen Lologo Squid 한치 20-25 CM/LB \$5.99	Frozen Mackerel Pike 공치 90-110'S/LB \$2.99

SMART CARD MEMBER ONLY

PULMUONE Cold Noodles with Broth 풀무원 평양 물냉면 11.6 OZ X 4 EA/PKG \$9.99	PULMUONE Cold Noodles with Spicy Sauce & Broth 풀무원 국물이 자작한 비빔냉면 22 OZ \$4.99
SAHMYOOK Soymilk with Black Bean 삼육두유 검은콩 두유 6.5 FL OZ X 20 EA/PKG \$13.99	SAHMYOOK Soymilk with Black Bean, Walnut & Almond 삼육 검은콩 호두 & 아몬드 두유 6.5 FL OZ X 20 EA/PKG \$13.99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옐로우 15 LB \$12.99	OTTOGI Snack Ramen 오뚜기 스낵면 3.8 OZ X 5 EA/PKG \$4.99	HARIM The Mishik Squid Ramen 하림 더 미식 오징어 라면 4.59 OZ X 4 EA/PKG \$4.99	SGFOOD Seasoned Sliced Laver 성경 도시락용김 ORIGINAL/GREEN LAYER/OLIVE & GREEN TEA 2.82-3.52 OZ (20 EA/PKG) \$5.99	DAERIM SEON SAJO Seafood Ball 대림선 사조 해물동그랑땡 2.2 LB \$6.99
OTTOGI Premium Pork & Vegetable Dumplings 오뚜기 고기 손만두 1.54 LB \$8.99	MARUCHAN Mama Yaki-soba Stir Fry Noodles with Seasoning Sauce Base 마루찬 아끼소바 16.93 OZ FOR 2\$5	PULMUONE Cold Noodles with Radish Kimchi Broth 풀무원 동치미 물냉면 30.7 OZ \$4.99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소면 5 LB \$4.99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FOR 2\$7
HAIO Natural Sea Salt 해오름 명품 고운 소금 10 LB \$9.99	WOONGJIN Nature Is Pear Drink 웅진 자연은 배 50.7 FL OZ \$2.99	HELLO KITTY Sanitary Pads 헬로키티 마이 리얼 생리대 LIGHT (40 EA/PKG) -\$4.99 REGULAR (14 EA/PKG) LARGE (12 EA/PKG) -\$5.99 \$2.99 \$3.99	SURLASANG Square Fry Pan 수라상 마블 후라이팬 10.6 INCH/EA \$18.99	HELLO! Egg Fry Pan 헬로! 에그 후라이팬 ROUND/5.5 INCH -\$7.49 INDUCTION BASE SQUARE/5.1 X 7 INCH -\$10.49 \$5.29 \$7.99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hyk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연 617.447.0501 nohmi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지연 978.866.3248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인주 401.538.3397 ty.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소연 617.338.0787 soyeonpark@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bostonpremierrealty.com	박수진 617.528.6973 sujin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사연 213.503.0347 saeon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지연 413.507.1400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박순연 617.913.3388 sunyeonpark@bostonpremierrealty.com
최진근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선 781.836.3412 jeon@bostonpremierrealty.com	한희숙 781.959.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박지연 617.915.1162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준연 617.943.0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박민연 404.641.9192 mi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5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정혜연 박 201.446.8995 hye@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외국인 건보 퍼주기'는 옛말?...재정 흑자 9천400억 '역대 최대'

제도 강화로 8년 연속 흑자, 흑자 폭 매년 확대...'적자 주범' 지목 中도 흑자 전환 일각 '상호주의' 도입 주장 여전하지만...외교마찰·차별 우려에 정부는 '신중'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며 그 규모를 키워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마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건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두고 국익과 차별 사이의 사회적 논의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외국인 건보 재정, 8년 연속 흑자...지난해 9천439억원 '역대 최대'

19일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천255억원이던 흑자는 2020년 5천72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23년에는 7천30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9천439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1조원을 눈앞에 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이들이 병원 진료 등을 통해 받아 간 보험급여 총액을 빼고도 막대한 금액이 남았다는 의미다.

국가별 흑자를 살펴보면 베트남(1천203억원), 네팔(1천97억원), 미국(821억원), 캄보디아(742억원) 등 대부분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해 전체 재정 건전성에 기여했다.

주목할 점은 그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해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국 국적 가입자와 관련한 재정수지 변화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중국은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 폭을 크게 줄이더니, 작년에는 55억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특정 국가에 편중됐던 재정 불균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사한다.

◇ '무임승차' 막은 촘촘한 제도 개선

이런 극적인 재정 개선은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 문턱을 꾸준히 높여온 정책적 노력의 결과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으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작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는 됐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과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2019년 7월에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작년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을 원천 차단했다. 이처럼 촘촘해진 제도가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재정수지를 흑자로 이끈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 남은 과제... '상호주의'와 '차별' 사이의 딜레마

견고한 흑자 기조에도 정치권 등 일각에선 여전히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에게도 보험 혜택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만을 겨냥해 상호주의를 적용할 경우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고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날 소지도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가 우리나라보다 의료보장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 도입이 자칫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해외에서도 체류 기간이나 취업 여부로 가입 자격을 제한할 뿐 출신 국가를 이유로 보장 수준에 차별을 두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퍼주기'라는 오해와 달리 성공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오히려 내국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재정 흑자라는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국익과 인도주의,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단계 더 나아간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

shg@yna.co.kr



"간편식 냉면 나트륨 주의해야...하루 기준치 초과 제품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집에서 해 먹는 간편식 냉면 10종 중에서 9종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간편식 물냉면과 비빔냉면 각 5종의 성분 등을 검사한 결과 나트륨과 열량 과다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나트륨의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는 2천mg이다. 냉면 10종 중에서 9종은 1

인분의 나트륨이 1천mg(기준치 대비 50%)을 넘었다.

칠갑농산의 얼음찬 물냉면 나트륨 함량은 2천969mg(148%)으로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이마트 노브랜드 물냉면(1천833mg)과 칠갑농산 얼음찬 비빔냉면(1천790mg)의 나트륨 함량도 기준치의 90%에 달했다.

풀무원식품의 함흥비빔냉면(803mg)의 나트륨 함량은 10종 중에서 유일하게 기준치의 50%를 넘지 않았

다.

물냉면 5종의 나트륨 평균 함량이 1천999mg으로 비빔냉면 5종 평균(1천270mg)보다 많다.

냉면 1인분 전체 나트륨 함량에서 육수와 비빔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3%, 66%이다.

면보다 육수와 비빔장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섭취 시 첨가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1인분 기준 간편식 냉면의 열량은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23~29%이다.

하지만 한 끼에 2인분을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최대 57%를 차지해 과도한 열량을 섭취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한 끼 식사로 냉면 1인분을, 47%는 2인분을, 3%는 3인분 이상을 각각 먹는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냉면 1인분이 한 끼 식

사로 부족할 경우 면을 추가하는 대신 삶은 계란과 고기, 오이 등 고명을 함께 먹으면 열량 상승은 적게 하고 단백질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다고 추천했다.

1인분 기준 가격은 1천708원에서 3천600원으로 최대 2.1배의 차이가 있다.

농심 동지냉면 동치미물냉면과 비빔냉면이 1천708원으로 가장 싸고 풀무원의 동치미냉면과 함흥비빔냉면이 3천600원으로 비싼 편이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UNE 19TH - JUNE 26TH, 2025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40 years Since 1982
 H MART
 창립 40주년
 실속기획세트



ORION

Combo Pie

CHOCO PIE + CUSTARD

24팩

오리온 콤보 파이

0.81-1.38 OZ X 24 EA/BOX

LIMIT 2 BOX

\$6.99

HAITAI ICE

BRAVO Ice Cream Cones

3 VANILLA + 3 STRAWBERRY

해태 부라보콘 5+1 기획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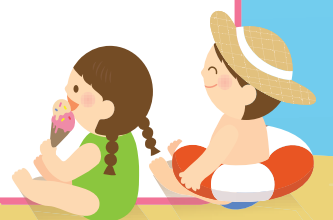
5.07-5.41 FL OZ X 6 EA/BOX

\$7.99

LIMIT 2 BOX



NEW FLAVOR
STRAWBERRY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소지섭 "누아르는 가장 잘하는 장르...아직 몸이 쓸 만하죠"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차가운 인상에 날렵한 외모, 압도적인 카리스마 뒤에 어렴풋이 느껴지는 쓸쓸함. 독보적인 아우라를 가진 웹툰 '광장'의 주인공 남기준은 한창 작품이 연재되던 시절부터 배우 소지섭과 잘 어울린다는 독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소지섭은 딱 맞는 옷을 입은 듯, 완결된 지 4년 만에 넷플릭스 시리즈로 재탄생한 '광장'에서 기대에 버금가는 연기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작품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지 언정, 난도 있는 액션과 감정 표현을 함께 소화해낸 소지섭의 연기는 고른 호평을 받고 있다. 무자비하고 냉철한 액션 연기에 'K-존위'이란 별명도 붙었다.

시리즈 공개를 기념해 12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소지섭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장르로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아 기분이 좋고,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와 함께 작업한 건 처음이어서 반응이 어떤지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며 "궁금한 마음에 열심히 반응을 찾아보고 있다"고 웃어 보였다.

'광장'은 과거 조직폭력배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끊고 은퇴한 남기준이 동생 남기석(이준혁 분)이 살

해당하자 돌아와 피의 복수를 벌이는 이야기다.

소지섭은 "원작 팬들이 남기준 역에 저를 거론해주셨다는 얘기는 제가 작품을 선택한 후에 처음 들었다"며 "감독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캐스팅 제의를 하신 거로 아는데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연하기로 결정하고서 원작을 읽었다"며 "(대본이) 원작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큰 그림 자체는 비슷하게 가져가려 했다. 원작 속 남기준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다"고 했다.

"남기준은 복수를 위해 직진하고 멈추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가진 분위기와 눈빛,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넣고 연기하려 했습니다."

야구방망이 하나로 수십명의 조직폭력배를 때려눕히고, 칼에 찔리고 총상을 입었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마치 불사신 같은 캐릭터를 맡은 만큼, 소지섭은 남기준이 가진 에너지를 화면 너머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그는 "남기준은 멈추기는 할지 언정, 절대 후퇴하지 않는 캐릭터"라며 "연기할 때도 타격을 받으면 밀려나기는 하지만, 결코 뒤로 피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남기준의 성격을 액션에도 녹여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을 위해 복수하는 모습이 멋있는 동시에 처절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길 바랐다"며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눈에 깊이 감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액션 장면으로는 극 중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나온 정인석과 맞붙는 4회 후반부를 꼽았다. 정인석 역할은 실제 이종격투기 챔피언인 김태인 선수가 연기했다.

소지섭은 "저도 평소 권투를 해서 몸에 손을 대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데, 김태인 선수와 다투는 장면에선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온몸이 무기처럼 느껴져서 단순히 액션 합을 맞추는 것과 달랐다"고 떠올렸다.

2020년 아나운서 출신 조은정과 결혼한 그는 "아내는 작품보다 제가 고생한 것에 더 집중해서 본 것 같다"고 했다.

'광장'은 소지섭이 영화 '회사원'(2012) 이후 13년 만에 출연하는 정통 누아르 액션물이자, 첫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도전작이다.

소지섭은 "나이 먹고 액션을 찍으려니 몸이 머리보다 반 박자씩 느린 게 느껴졌다"며 "그래도 아직은 몸이 쓸 만하다고 느꼈다"고 웃음 지었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잘하는 장르는 누아르라고 생각



해요. 별 대사 없이 몸을 쓰고, 눈빛으로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 장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광장'은 공개 3일만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 부문 시청수 2위를 차지했다.

소지섭은 "한국 누아르는 해외 누아르와는 다른 차별점이 있다

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선 총을 많이 쓰는데, '광장'은 주먹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 거리감과 타격감이 다르다. 가까운 거리에서 액션이 펼쳐져서 더 큰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같다"고 했다.

기회만 된다면 그는 다음에도 가까이 누아르를 선택할 것 같다고 했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0) 새로운 백만장자

작년(2024)에 미국에서 무려 562,000명의 새로운 백만장자(Millionaire)가 탄생했다. 미국의 백만장자는 700만 명이나 된다. 우리는 아메리칸의 꿈(American dream)을 이루기 위해 정든 조국 땅과 형제 부모를 뒤로 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열심히 일한다. 백만장자는 우리와 거리가 먼 판 세상의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생활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백만장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백만장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알아 본다.

*백만장자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수입이 가장 많은 부자의 1%가 미국 전체 세금의 45%를 부담하고 있다. 부자 탑 10%는 미국 전체 세금의 75%를 차지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백만장자들은 단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자들은 부모를 잘 만나 상속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토머스 스탠리(Thomas J. Stanley)가 쓴 책 "The Millionaire Next Door"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상속으로 부자가 된 경우는 단지 20%에 불과하며, 80%의 백만장자들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이다. 부자들도 하루에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투자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결론이다.

*백만장자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백만장자라면 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백만장자들 자신도 우리가 염려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한다. 아이들의 학자금, 주택 융자, 의료비, 그리고 노후대책 등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대로 걱정한다. 특히 새롭게 된 백만장자들은 더욱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하고 있다.

*백만장자들은 많은 봉급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봉급을 받음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전체에서 겨우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받은 자영업(Business)이나 적은 봉급을 재정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여 백만장자로 이어진다.

미국에서 태어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거나 한국에서 이민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다. 언어소통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는 근면 정신이 있다.

*백만장자들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부자들은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 역시 맞는 말이 아니다. 통계의 결과는 대부분의 부자가 국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타는 자동차는 포드(Ford) 자동차이다.

*백만장자들은 항상 골프 등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긴다.

백만장자 중에서 은퇴한 부자들의 비율은 단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백만장자들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지극히 평범한 계층의 사람들이다. 상속도 받지 않았고, 포드자동차를 운전하며 그저 열심히 일하며 부지런히 저축하며 투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이들 학자금을 염려하며 노후를 걱정한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오늘날의 백만장자들은 재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한다. 은근과 끈기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가짜뉴스, 예방은 팩트체크 백신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뉴스를 무작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킵니다.
뉴스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기사와 비교하는
팩트체크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모두가 팩트체크라는 백신으로 허위정보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김유진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우리 한인들의 이민 역사도 이제 제법 오래 되어 우리 2세대들이 미국 상류사회에서 이제 많이들 자리 잡았다.

많은 한인들이 투자 물건들에 관심이 많으시다. 요즘 흔히들 묻는 말은 “넌 언제 라타 이어 할거니?” 다.

이러한 추세로 많은 분들이 투자(investment)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럼 전문 중계인인 나로서 어떠한 투자 대상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이 물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Rental properties: 부동산을 사서 렌트를 내주고 소득을 만드는 방법이다. 장기적으

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사는데 다운페이먼트가 많지 않으면 당장 현금흐름(cash flow)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 투자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분들이 많이 찾는 방법이다. 투자자의 신용점수(Creditscore)나 소득(Income)에 따라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다.

2. Business: 아마도 단시간내에 가장 현금(cash flow)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Business) 물건을 사서 운영하는 방법과 새로 사업체(Business)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가지 방법 중

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구매 하면 현재 들어오는 현금흐름 수준을 알 수 있지만 새로 시작하면 현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에 신용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가능한데 SBA Loan option도 있다.

3. Wealth Management: 이 방법은 현재 본인에 현찰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게만 해당할 것이다. 재산을 관리해 주는 회사의 전문가에게 자산 관리를 방법이다. 대부분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큰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한다. 자산이 많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4. 주식: 투자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개인이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제는 경험이 없다면 어디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 쉽지가 않다. 하지만 많지 않은 투자 액수로 다른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5. Flip: 부동산을 사서 고쳐서 파는 방법이다. 집에 따라 다르지만 집 고치는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잘 안다면 그리 힘든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집을 고치는데 있어서 이 일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순조로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모기지가 가능한데 이 경우 Construction Loan

option도 있다. 6. CD: 은행에 돈을 정해진 기간동안 넣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가장 이익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다.

위의 투자들을 보면 위험이 많이 따를수록 이익은 많다. 또한 본인에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투자가 있고 할 수 없는 투자가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많은 투자는 불가능하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6월 22일 - 6월 2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솔직하게 털어놓고</p> <p>● 운수: 당장은 인정받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 금전: 정상적으로 일한 것에 관한 결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애정: 혼자서 속앓이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결책도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23, 28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소띠 지금은 때가 아니니</p> <p>● 운수: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고 지나가야 합니다. ● 금전: 실패나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론만으로는 통하지 않으니 직접 부딪쳐서 얻는 산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8일 주의.</p>	<p>범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p> <p>● 운수: 정성을 들이고 신경 쓴 만큼 그에 보답하는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니 힘든 시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 금전: 굳이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매상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2, 28일 길일. 23, 25일 주의.</p>
<p>토끼띠 배짱이 있어야</p> <p>● 운수: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신호가 오면 잠시 멈춰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약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눈앞의 적은 이익은 내어주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2, 23일 길일. 24, 25일 주의.</p>	<p>용띠 상식선에서 처리해야</p> <p>● 운수: 무슨 일이든 경우에 맞게 행동하고 상식선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디게 가고 답답한 것 같아도 제대로 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 금전: 바깥 일이 잘되어도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가족에게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때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주고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6, 28일 길일. 22, 25일 주의.</p>	<p>뱀띠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를</p> <p>● 운수: 남의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코앞에 있는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 금전: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낼 때는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면 잘 보입니다. ● 애정: 의견을 합쳐야 할 일을 두고 서로가 편견을 품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p>말띠 원칙을 고수해야</p> <p>● 운수: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바른 것이 이깁니다. ● 금전: 순리대로 흘러가야 잘 성사됩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 애정: 미사여구가 들어간 화려한 말보다 진정성이 담긴 한 마디가 더 강한 힘으로 상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양띠 행운의 여신의 저울이 내 쪽으로</p> <p>● 운수: 행운의 여신의 저울이 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고 번거로우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손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비교적 원만하게 흘러가는 운세입니다. 맘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자꾸 생각하게 되고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생기겠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p>	<p>원숭이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p> <p>● 운수: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되어 영 쉼 없이 실타처럼 풀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들어오자마자 나갈 일이 생깁니다. ● 애정: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선택이 지나고 보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p>
<p>닭띠 항상 침착하게</p> <p>● 운수: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보다도 나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 금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생각지도 않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침착하게 꼼꼼하게 잘 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8일 길일. 24, 27일 주의.</p>	<p>개띠 곳곳에 귀인이 있으니</p> <p>● 운수: 긴 시간 고민하게 하던 일이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날아갈 듯이 훌쩍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곳곳에 귀인이 있으니 활동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자신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 애정: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던 고민과 갈등의 늪에서 벗어납니다. 한결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돼지띠 다시 잘 생각해야</p> <p>● 운수: 남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구매로 인해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다시 잘 생각하세요. 한 번 믿음이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고 오래 가기도 힘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3, 27일 길일. 26, 28일 주의.</p>



친구 찾아 우주로 떠난 지구 금쪽이...애니 '엘리오'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요즘 말로 '금쪽이'인 열한살 소년 엘리오는 매일 크고 작은 사고를 치고 다닌다.

물래 학교를 빼먹는 건 물론이고 고모인 율가의 훈계를 버릇없이 되받아치기 일쑤다.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오기도 한다.

율가는 조카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외계인을 향한 그의 집착이다.

엘리오의 방은 외계인 관련 기사와 모형, 장난감, 포스터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엘리오는 급기야 조잡하게 만든 외계 송수신기를 밤마다 해변에 설치하고 모래사장 위에 대(大)자로 드러눕는다. 그 주위로는 하늘에서도 볼 수 있

을 만큼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놓는다.

"Aliens! Abduct Me!!!"(외계인들아! 나를 납치해줘!!!)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오'는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기를 꿈꾸는 사고뭉치 엘리오가 어느 날 갑자기 외계 행성으로 소환되며 겪는 모험을 그린다. 도미시, 매들린 샤라피언, 아드리안 몰리나 세 감독이 공동 연출했다. '소울'(2020), '루카'(2021), '엘리멘탈'(2023), '인사이드 아웃 2'(2024) 등 디즈니·픽사 대표작 제작에 참여한 감독들이다.

'인사이드 아웃'(2015)과 '인사이드 아웃 2'(2024)에서 각각 슬픔과 불안의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낸 관객에게 위로를 전했던 픽사는 이번 작품에선 외로움을 소재로

삼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느꼈을 법한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 기분'을 주인공 엘리오를 통해 표현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오가 지구를 벗어나고 싶은 이유도 바로 외로움 때문이다. 그는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뒤 누구에게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살았다. 앞에서 고모에게 큰소리를 치지만, 뒤에선 그의 삶에 방해꾼이 된 듯한 느낌에 기가 죽는다. 학교 친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다.

그는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 중 어딘가에 자신을 사랑해줄 생명체가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주의 고등 생명 공동체 '커뮤니버스'에서 자기를 지구의 대표로 오해해 데려온 것을 알아채고도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다. 지구 대표 행세를 하기로 한 엘리오는 커뮤니버스의 정식 일원이 되기 위해 이들의 골칫거리를 대신 해결해줄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생애 처음으로 또래 친구 글로든도 사귀다. 둘은 우주 곳곳을 누비고 갖은 고비를 넘기면서 우정이 뭔지 알게 된다.

픽사 영화는 성인 관객도 눈물짓게 해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불리곤 하지만 이번 신작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타깃으로 한 듯하다. 엘리오의 여정이 다소 단순하게 그려지고 우정과 가족애, 유대감이란 메시지가 도드라지는 느낌이다. 웃음보다는 감동에 초점을 맞춰 코믹한 캐릭터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지구와 우주를 오가며 보여주는 눈부신 영상미만큼은 관객이

기대한 대로다. SF 실사 영화에서 흔히 묘사하는 어두운 분위기의 행성과는 달리 커뮤니버스는 '엘리멘탈' 속 원소들의 도시 엘리멘트 시티처럼 신비한 곡선 모양의 구조와 반투명한 형형색색의 색감으로 꾸며졌다. 제작진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작은 버섯과 균류, 미세한 해양 생물에서 영감을 받아 영화 속 세계관을 만들어냈다.

외계 캐릭터들은 외계의 지적 동물을 연구하는 세티(SETI)의 천문학자 질 타터에게 자문해 완성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 속 외계 생명체 '크리퍼'를 닮은 글로든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성이 뚜렷하고 귀여운 구석도 있다.

18일 개봉. 98분. 전체 관람가.

rambo@yna.co.kr

하츠투하츠, 신곡 '스타일' 발매... "발랄한 매력의 여름노래"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 체이스'로 하츠투하츠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지우)

지난 2월 몽환적인 분위기의 '더 체이스'(The Chase)로 가요계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새 싱글 '스타일'(STYLE)로 상반된 매력을 선보인다.

하츠투하츠는 1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데뷔곡과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를 선보일 것"이라며 "'스타일'로 밝은 에너지와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되는 '스타일'은 경쾌한 리듬과 베이스에 멤버들의 발랄한 보컬을 엮은 업템포 댄스곡이다.

"내가 너의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것처럼, 너도 하츠투하츠만의 스타일을 사랑하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담았다.

유하는 "하츠투하츠만의 발랄한 매력이 잘 담긴 곡이고,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시원한 노래"라며 "저희의 밝은 보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안은 "사랑스러운 가사와 통통 튀는 분위기가 매력적인 곡"이라고 덧붙였다.

데뷔 후 신인상을 받고 SM타운 콘서트에 참석하며 등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하츠투하츠는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했다. 멤버들은 무대를 통해 팀의 고유한 매력을 뽐내고 싶다는 목표도 밝혔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8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가스라이팅(gaslighting)!!”

요즘 들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가끔 듣게 된다. 유튜브 방송이나 정신 분야, 상담심리 분야 전문가들의 방송을 통해 듣게 된다. 나 역시도 상담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심리 분야와 함께 정신질환 부분도 공부하게 되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등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현실감각, 상황 등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대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압해서 의도된 방향으로 끌고가는 그런 심리적 노예처럼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자기의 외적 권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억압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스라

이팅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 권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1938년 영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Patrick Hamilton)의 연극 <Gaslight>에서 남편이 교묘한 거짓말과 상황 조작으로 아내의 생각을 조종하고 서서히 정신병자로 몰아간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1938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인기리에 상연한 동명 연극을 미국 MGM에서 영화로 각색했다고 한다. 정체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교묘하게 조종당하며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 아내를 연기한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이 오스카와 골든글러브에서 여우주연상을 안았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1940년대 영화계에서 유행하던 ‘남편을 조심하라’ (Don't Trust

Your Husband)는 대표적인 느와르 테마로 부상했고 남을 교묘하게 조종한다는 심리학 용어 ‘가스라이팅’으로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 2019년에는 영화의 문화적, 사회적, 심미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미국 국회 의사당에 영구 보존되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도 알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조금씩 조금씩 심리적,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라진 브로치를 통해 이야기는 시작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브로치를 건네며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잖아!’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암시를 하는 것이다. 아내는 얼마 후 가방을 열었다가 브로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다. ‘없어요, 하고 당황하며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날 용서하세요! 라며 말이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지 기능(특히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 그런 암시가 실제 사건(브로치 분실)을 통해 사실로 밝혀 짐으로써 피해자인 아내는 자신의 기억력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아내)가 본인의 잘못으로 느끼게 만들어 가해자(남편)의 눈치를 보고 사과를 하고 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가해자(남편)는 피해자(아내)를 경시하며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남편은 또 가정부를 추켜세우는 동시에 아내를 깎아내림으로써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내가 듣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가정부를 칭찬하면서 대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아내 입장에서 는 비교당하고 무시 당하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인 것이다. 생각해 보라. 혹여, 내가 ‘피해자’는 아닌가. 또는 ‘가해자’는 아닌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고찌글라 고찌가



김희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조근조근”이란 부사副詞가 있다. 전라남도 지역과 제주도 방언이라 한다. 은근하지만 조리 있게 낮은 목소리로 자세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낱말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선 “차근차근”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근조근” 보다는 “조근조근”이 더 조근하게 들린다

나와는 거리가 먼 낱말이다. 급한 성격인지, 말할 적에 두서가 없고 곧잘 스스로 흥분하기 때문이

다. 조근조근 설명하거나 말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다. 그러나 “조근조근”이라면 피천득 선생이나 김형석교수님이 떠오른다. 당신은 조근조근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더욱 건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듣는 이들이 답답해하지도 않는다. 두분 말씀에 흠뻑 빠져들기 때문이다.

피천득 선생의 시 한편이다. 가까운 친구들과 조근조근 이

야기 하며 웃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피천득, 이 순간 중에서)

광화문 글판이 걸렸다고 한다. 글 내용이 이채롭다. “고찌 글라, 고찌 가. 고찌 글민 백리길도 심리 된다.” 무슨 말인가 했다.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다. 찾아 보고

알았다. “같이 가라. 같이 가.”라는 뜻이다. 얼핏 “고찌”와 같이 라는 말은 비슷하기도 하다. “글라”라는 말 역시 가라는 말로 이해 할수있다. 해설을 듣고 보고 나니 그렇다는 말이다.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 하며 같이 가는 건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먼백리길도 심리처럼 짧게 느껴질 것이다.

제주도 사투리. 아니 방언方言이라 한다. 지방말이란 말인데, 사

투리란 말이 더 정감이 간다. 놀림의 대상은 아니며, 표준어는 표준어 대로, 방언은 방언대로 보존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말보다 유용한 소통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방언역시 소중한 자산이란 말인즉, 듣기에도 입에 올리기에도 따뜻하다. 조분조분 읽어야 하고, 소리치지 않아야 더욱 그러하다.

이튼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사도행전 10:9)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식후 저혈압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식사 후에 어지럽고 졸리며, 노인에게서 아침에 주로 발생이 많은 식후 저혈압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 유어진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식사를 하고 혈당을 측정하면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혈압은 오히려 평소보다 떨어질 때가 있다. 식사 후 1~2시간 이내에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식후 저혈압’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식 후 20mmHg 이상 감소할 때 진단된다.

식후 저혈압이 생기면 어지럼증과 현기증, 눈 앞이 흐려짐, 졸림과 피로감이 나타난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 도 식사 후 졸림, 피로감, 집중력 저하,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긴다. 다만 식후 저혈압은 혈압 문제,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 문제이기 때문에 증상이 같아도 기전과 치료법이 다르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를 위해 장으로 많은 혈류가 이동한다. 이때 몸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심박수 증가 및 혈관 수축 등의 조절을 해야 한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다른 장기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더라도 혈액을 준비하는 능력이 충분해 식후에도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의 혈압이 유지된다.

그러나 노인,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사람(파킨슨병,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환자) 등은 이 조절 기능이 떨어져 혈압이 과도하게 감소할 수 있다. 혈액은 장으로 흐르지만 심장 박동은 적절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혈관이 충분히 수축하지 못해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혈압약까지 복용했다면 과도한 혈압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식후 저혈압이 더 잘 나타난다.

내과에서는 식후 저혈압 환자의 소화기계, 심혈관계, 내분비계 등 전신적인 문제를 먼저 살피고 혈압 조절, 당뇨병, 심장 문제 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에 혈압약 복용을 시작했거나 복용 중인 경우 △고령이며 어지럼증이 식

사와 관련해 반복되는 경우 △당뇨병, 고혈압,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내과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식후 저혈압은 고탄수화물 식사 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량씩 자주 식사하고, 고탄수화물 식사를 피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면 혈압이 더 쉽게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않아야 하며 수분, 염분을 조절해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 유어진 과장은 “노년층에서 식후 저혈압으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며, 어지럼증을 피하려 식사 후 활동을 꺼리게 되고 이는 신체 활동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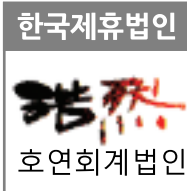
유과장은 “식사 후 어지럼증, 피로감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 혹은 혈압약을 새로 바꾸었거나 용량을 늘린 후 증상이 시작됐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며’ 노년층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 식사 후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식사량을 줄이고 자주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 고 강조했다.

“식후 저혈압”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a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Michael Lee

Mobile (978) 314-8818

Email mike.lee@gmccloan.com

“집을 사는 게 나을까? 렌트하는 게 나을까?” :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략적 선택

Article (9) – Should you rent or buy?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그냥 렌트로 계속 살아야 할까?” 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이 질문이 더욱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20% 다운페이먼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보스턴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월세가 모기지보다 저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는 초기 비용이 적고, 유지비 걱정도 없으며, 고정된 비용으로 예산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보험, 유지 보수 등 추가 부담 없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렌트를 선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반면 집을 소유하게 되면, 다운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매달 부담해야 하는 모기지와 함께 세금, 보험, 관리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자율이 6%대에 머물고 있는 지금,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렌트가 더 “경제적” 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판단은 월 지출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적은

초기 자본으로 큰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렛대 (leverage)' 효과가 가능한 유일한 자산군입니다. 예를 들어, 20% 다운으로 100만 불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20만 불로 100만 불짜리 자산의 미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강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오를수록, 그에 맞춰 주택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때문에 특정 도시에 거주해야 하지만

그지역의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면, 꼭 그 지역에서 집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는 렌트로 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즉, 직접 거주하는 집은 렌트로 해결하고,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따로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늘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역 선정, 수익성 분석, 관리 방

법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는 “사는 게 낫다, 빌리는 게 낫다” 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각자의 재정 상황과 장기 목표에 맞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와 구입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내과전문의 이용현

저는 현재 매사추세츠 프레임햄에 위치한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CRMA)에서 내과 및 비만 클리닉을 운영

위고비, 켈바운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정말 이 약들을 맞아야 할까요? : 비만 치료제의 효능 및 부작용

“위 고비 (Wegovy)”, “켈바운드 (Zepbound)”, 요즘 주위에서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체중 감량을 위한 주사제 약물로, 뉴스나 유튜브, 지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이거 정말 맞아야 하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거 정말 맞아야 하나?”, “효과는 진짜 있는 걸까?”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약 없이 살을 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운동과 식이조절만으로 체중이 줄고 건강이 개선된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약 없이 살을 빼는데 실패한 경우’ 라는 점입니다. 즉, 이제 비교해야 할 것은 약을 먹지 않고도 살이 빠지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약을 맞지 않고 살이 빠지지 않는 현실과 약을 맞고 살이 빠지는 경우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입니다. **합병증이 있다면?**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라면, 결정을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주사제의 도움을 받아 체중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켈바운드 (Zepbound)는 단독 사용 시 최대 체중의 약 20% 감량이 가능하며, 운동과 식단 치료를 병행할 경우 20~25%까지 감량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kg인 사람이 켈바운드를 사용할 경우 최대 약 18kg 감량이 가능하며,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하면 22kg 이상 감량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 (Wegovy)는 최대 15% 감량 효과가 기대됩니다. **체중감량 외 건강 개선 효과도 있나?** 또한 이 두 약물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 켈바운드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OSA) 개선 효과가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부작용과 초기 관리? 부작용이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투약 첫 1개월 이내에 호전되며, 메스꺼움, 식욕 저하, 변비, 설사 등이 흔히 보고됩니다. 이런 증상은 용량을 천천히 조절하면서 시작하면 대부분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 다만, 갑상선암, 특정 가족력, 췌장염 같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

담하며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강력한 도구?** 결론적으로,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체중 감량이 되지 않고 건강 문제까지 생긴 상황이라면, 이런 주사제 약물은 삶을 바꾸는 중요한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마법이 아니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 <https://youtu.be/Su7YFyPmdEk>

65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보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이는 갖고 있던 메디케이드 혜택이 종료된다는 사실에 당황하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칼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1〉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한 후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을까요?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소득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에 대해 적용되는 메디케이드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방빈곤지표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38% 이하인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확장 메디케이드 (Expanded Medicaid)를 통해 혜택을 받아왔다면, 65세가 되면서 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소득 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800, 부부는 월 \$2,432.25입니다.

65세가 되면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받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저축, 퇴직연금 등 자산 보유 여부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자산이 많을 경우 시니어 메디케이드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과 월 소득 및 자산 한도가 다르며 매년 갱신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Q2〉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한 후에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의 시니어 메디케이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65세 이후에도 메디케어와 함께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수자격자(Dual Eligible)”로 분류되며, 두 프로그램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비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체 메디케이드 (Full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SSI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월 소득 \$97 이하, 자산 \$2,000 이하
 부부: 월 소득 \$1,450 이하, 자산 \$3,000 이하

일부 주에서는 연방 기준의 SSI에 더해 별도의 주 보조금(State Supplementary Payments, SSP)을 제공하면서 SSI 한도를 높이거나 SSI와 관계없이 더 높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부부 기준으로 월 소득 \$2,432.25까지 가능하며, 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주: 연방 SSI 기준과 동일하게 부부 기준 월 소득 \$1,450 이하, 자산은 \$3,000 이하입니다.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전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및 B 보험료
 연간본인부담금 (Deductible)과 코페이 (Copay)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서비스 (치과, 안과, 장기 요양 등)
 또한, 처방약 비용을 줄여주는 엑스트라 헬프 (Extra Help,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 보조 프로그램) 자격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시니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Extra Help에 등록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메디케어에 가입한 이후 더 이상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전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Medicare Savings Program, MSP)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일부 해당되는 경우, 파트 A 보험료
 일부 해당되는 경우, 본인 부담 비용(디덕터블, 코페이 등)
 또한, MSP에 등록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줄여주는 Extra Help 혜택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MSP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마다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MSP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Extra Help 만 따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영어) 1-800-336-2722 (중국 표준어) 1-800-683-7427, (중국 광둥어) 1-800-582-4218, (한국어) 1-800-582-4259, (베트남어) 1-800-582-4336
 이메일: askNAPCA@napca.org
 우편: NAPCA Helpline,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



수혜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Extra Help에 등록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메디케어에 가입한 이후 더 이상 시니어 메디케이드의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전체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Medicare Savings Program, MSP)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일부 해당되는 경우, 파트 A 보험료
 일부 해당되는 경우, 본인 부담 비용(디덕터블, 코페이 등)
 또한, MSP에 등록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줄여주는 Extra Help 혜택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MSP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마다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MSP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Extra Help 만 따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3가지 방법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영어) 1-800-336-2722 (중국 표준어) 1-800-683-7427, (중국 광둥어) 1-800-582-4218, (한국어) 1-800-582-4259, (베트남어) 1-800-582-4336
 이메일: askNAPCA@napca.org
 우편: NAPCA Helpline,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

3달만에 맑은 토요일... 다음 주 첫 본격적 폭염주의보 가능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전역에 울여름 첫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와 다음 주에는 첫 공식 ‘폭염주의보 (heat wave)’가 발령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3개월만에 처음 맑은 토요일도 이번 주 찾아들게 될 것으로 예보됐다.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은 이번 주 목요일인 6월 19일에는 매사추세츠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화씨 92도(섭씨 약 33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속 21마일에 달하는 남서풍이 불고, 오후 늦게는 천둥번개

〈전체 기사 읽기〉 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가능성도 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계절에 맞는 기온이 예상되며, 특히 토요일은 지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가 오지 않는 토요일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기상청은 토요일 낮 기온을 화씨 83도(섭씨 약 28도)로 예측했으며, 늦은 밤 약한 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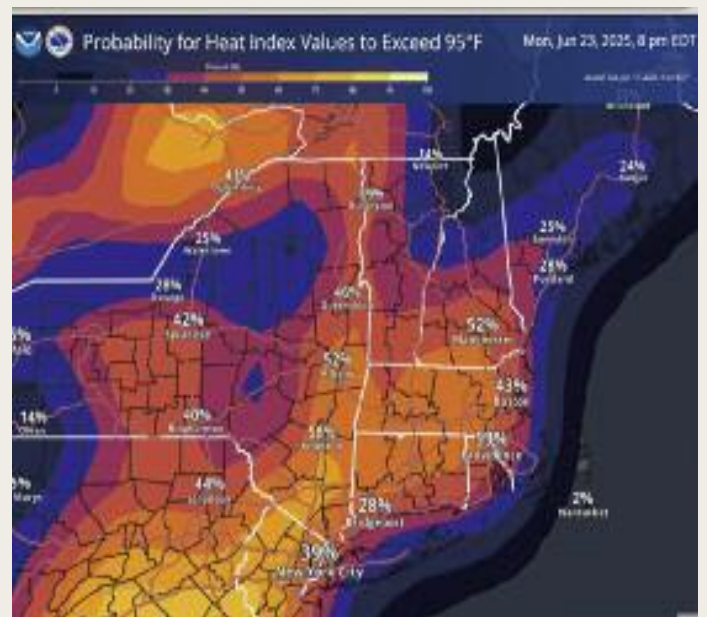
이후 일요일도 맑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폭염주의보 수준의 본격적인 무더

위로 이어지기 전의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장기 예보에 따르면, 6월 23일 월요일부터 최소 3일간 낮 기온이 94도(섭씨 약 34도)에 근접하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사추세츠에서 울여름 첫 공식 3일 연속 폭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온은 다음 주 목요일께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